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2019년 11월 18일 I Vol. 21 No. 10
ISSN 2093-341X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과제: 중서부지역

KIEP 북경사무소 (leehn@kiep.go.kr, Tel: 86-10-8497-287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과제: 중서부지역

차 례

1. 개요
2. 샨시성(陕西省): 혁신 역량 강화로 제조업의 부흥 추진
3. 산시성(山西省):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4. 안후이성(安徽省): 제조 발전환경 개선

주요 내용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에서 발표한 중국 대표 제조기지(省)의 제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서부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 과제 및 전망을 정리

▣ 샨시성은 국유기업 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로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 민영기업의 자금난, 인재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향후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역 기업 육성, 자금 지원 및 인재유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혁신 능력을 강화할 계획

- 시안시는 △GDP 내 제조업 비중 감소 △기업의 구조 전환 어려움 △핵심 기업의 부재 등을 발전 과제로 꼽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조성, 중점 기술 활성화 등 발전환경의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
- 바오지시는 중소기업 중심의 약한 산업구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부족, 생산비용 증가 등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

▣ 산시성은 제조업 발전에서 △인재 유치 △원활한 자금조달 △원가 절감 등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어 향후 석탄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제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

- 따퉁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기업 규모의 한계 △인재유치의 어려움 △지역 내 산업체인 미비 △높은 물류비용 등 한계가 존재하여 △연구센터 설립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물류 시스템 개선 및 대형 물류처리 센터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
- 타이위안시는 주요 문제점으로 △정책 및 행정 운영 미흡 △기업의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높은 금융비용 등을 꼽으며 향후 △정부부처와 기업 프로젝트의 상호 개발 촉진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을 실시할 계획

▣ 안후이성은 △불합리한 규제 타파 △금융 지원 △조세부담 및 생산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을 더욱 심화하고, 제조업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감세와 재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

- 허페이시는 △핵심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 △고급 인재 부족 △연구·개발 저조 △중·미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 등 문제에 직면하여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정책 지원 △인재 육성 및 지원 등을 강조
- 마안산시는 제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재 부족과 높은 융자비용에 따른 기업 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제조도시 건설을 위해 △경영환경 최적화 △인재유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

1. 개요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는 중국의 제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 8대 제조기지(省)의 제조업 실태를 조사하여 24편의 기사로 연재

- 이번 현지조사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그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 조사 대상인 대표 제조기지는 8대 지역(省)과 각 지역 내 주요 도시를 포함한 24개 성·시·구(省·市·区)임.

○ [화남]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 포산시(佛山); 푸젠성(福建省): 푸저우시(福州), 샤먼시(厦门)
○ [화동]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宁波), 타이저우시(台州); 상하이(上海): 푸동신구(浦东), 자딩구(嘉定); 장쑤성(江苏省): 쑤저우시(苏州), 장베이신구(江北新区)
○ [중서부]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 마안산시(马鞍山); 산시성(陕西省): 따퉁시(大同), 타이위안시(太原); 샨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 바오지시(宝鸡)

그림 1. 중국의 8대 주요 제조업 지역

■ 본고에서는 중서부지역 주요 도시의 제조업 발전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하여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요약 정리함.

- 샨시성은 대표적 화학공업 기지이자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북쪽에는 화학공업, 남쪽에는 IT, 장비 제조,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 그중 시안시는 IT와 SW 산업 기지로 IBM, 삼성전자, 화웨이 등 국내외 R&D 투자가 집중, 바오지시는 전기, 정보통신, 신소재 등 제조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
- 산시성은 중화학공업 발달지역으로 석탄산업, 기계, 화공, 금속제련 등이 발전, 그중 따퉁시는 국가 핵심 석탄 생산기지이며 철강, 석회석, 대리석, 화강석 등 자원이 풍부, 타이위안시는 전자정보, 선진 제조업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발전
- 안후이성은 가전제품, 자동차, 원자재 가공 분야에서 우위가 있으며, 특히 민영기업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발달, 그중 허페이시는 에어컨,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량이 중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 제조업도 발전, 마안산시는 안후이성 내 투자규모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자동차, 철강 등 산업이 발전

표 1. 중서부지역 주요 제조업 도시의 경제 현황

지역		인구 (만 명)	GDP (억 위안)	2차 산업 부가가치	주요 산업
샨시성		3,864.4 〔2.8〕	24,438.3 〔2.7〕	12,157.5 〔3.3〕	채광업, 화학공업, 자동차 제조, 항공우주 첨단장비 제조, 차세대 정보기술, 신소재, 현대 의약업
	시안	1,000.4 〔0.7〕	8,349.9 〔0.9〕	2,925.6 〔0.8〕	자동차 제조, 전력·전자 산업, 식품음료, 신소재, 철로, 선박, 항공우주 등 운송설비 제조
	바오지	377.1 〔0.3〕	2,265.2 〔0.3〕	1,434.1 〔0.4〕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석유장비, 공작기계, 철도교통업 및 전자·전기
산시성		3718.3 〔2.7〕	16,818.1 〔1.9〕	7,089.2 〔1.9〕	철도교통 원자재·부품 제조, 전동차 및 부품 제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바이오의약 산업, 특수강 등 신소재
	따퉁	345.6 〔0.2〕	1,271.8 〔0.1〕	464.5 〔0.1〕	건축업, 석탄연료 중화학공업, 여행업, 전력자원 생산업(풍력), 시멘트 제조업, 자동차 변속기 제조
	타이위안	442.2 〔0.3〕	3,884.5 〔0.4〕	1,439.1 〔0.4〕	석탄화학공업, 중형기계 제조, 석탄제조기계, 철강 및 금속 제련, 통신 및 컴퓨터 설비 제조, 철도장비, 자동차 제조
안후이성		6,323.6 〔4.5〕	30,006.8 〔3.3〕	13,842.1 〔3.8〕	컴퓨터 제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 의약 제조, 철 화합물 제련 및 압연 가공,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 일반설비 제조,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
	허페이	808.7 〔0.6〕	7,822.9 〔0.9〕	3,612.3 〔1.0〕	자동차 제조 및 공정기계, 가전제품, 화학공업 및 신형 건축자재,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자정보, 스마트언어 및 인공지능, 태양광산업, 바이오산업 및 의료장비, 중장변압기, 단압장비생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마안산	233.7 〔0.2〕	1,918.1 〔0.2〕	1,028.0 〔0.3〕	최고급 철강소재(high-end steel), 장비 제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선박 제조, 신소재

주: 통계수치는 2018년 기준; 〔 〕는 중국 전체 대비 비중(%)을 뜻함.
자료: CEIC Database,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참고.

2. 샨시성(陝西省): 혁신 역량 강화로 제조업의 부흥 추진

■ 샨시성의 제조업은 장비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샨시성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음.

- 과거에는 대부분 군수산업 중심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소비재 제조산업이 확대됨.
  - ○ 소비재 제조기업이 다수 생겨났으며, 일부 방산기업들이 민간 소비재 생산기업으로 전환
- 또한 장비 제조업의 경우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교통운수, 송·변전 설비, 국방·군수 산업에서 우위를 보유

■ 샨시성의 제조업은 △저조한 R&D 투자 △민영기업의 자금난 △인재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샨시성 발전연구센터 순제(孙杰) 부주임은 "샨시성 제조업은 민간 항공기 및 엔진, 초고전압 송전(UHV) 및 배전 장비 등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제조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의 R&D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언급
  - ○ 구체적으로 샨시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약 1.1%로 낮은 수준
- 지방은행의 부족한 대출자금과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 악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 또한 샨시성은 인재유치를 위한 인프라나 정책이 미흡하고 전문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실정

■ 향후 샨시성은 제조업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역 기업 육성 △자금지원제도 개혁 △인재유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

- 기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기업을 위한 토지 제공, 자금 지원, 세금 감면, 과학기술 혁신 등 정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
- 대출·여신 제도 등을 개선 및 확대하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융자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민영기업에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 정부 대출 담보, 재담보 설정 메커니즘 개선을 통해 혁신 및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전문 인재유치를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인재유치 제도를 강화할 계획

가. 시안시(西安市): 첨단장비 제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 시안시는 과거 전통 제조기지에서 항공우주 부품, ICT 장비, 송전설비,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선진 제조기지로 변모 중

- 최근 시안시는 전통 장비 제조 분야의 우위를 기반으로 첨단 제조업 기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임.
  - ○ 시안시는 1980년대 황하(黃河)컬러TV, 하이옌(海燕)컬러TV, 중화(中华)비누, 나비(蝴蝶)시계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지였음.

■ 시안시는 △GDP 내 제조업 비중 감소 △제조기업의 구조 전환 어려움 △핵심 기업의 부재 등을 제조업 발전 과제로 꼽고 있음.

- 시안시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8년(57.5%)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7년에는 전국 평균(40.6%)보다도 낮은 34.7%를 기록
- 시안시의 제조업은 국유기업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구조 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또한 산업 발전을 이끌 핵심 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안시 소재 기업 중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 포함된 기업은 2개에 불과함.

■ 향후 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 중점 기술 활성화 등을 통한 발전환경 최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첨단 제조업 발전을 중시하면서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시안시는 제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공우주 산업, 첨단장비, 신소재 정보기술 등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제조업 발전을 추진할 것임.
  - ○ 강점을 보유한 첨단장비 분야의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보다 많은 민영기업이 공급체인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
  - ○ 산업 집적단지 조성 및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창업 인재유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이 외에도 민영 제조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이어갈 계획임.
  - ○ 자동차, 일반설비, 전자기기 등 성숙한 산업 분야의 산업 클러스터 육성도 가속화할 계획

나. 바오지시(宝鸡市): 제조기업의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성장 가속화

■ 바오지시는 전기, 정보통신, 신소재 등 제조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태

- 바오지시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해 기업의 내륙 이전과 방산기업 설립을 통해 빠르게 발전해옴.
- 특히 바오지시의 장비 제조업 기술 수준은 전국 동종업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 수치제어 공작기계, 석유관을 포함한 40여 종의 상품이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60여 종의 상품 판매량은 중국 전체 혹은 세계 동종업계에서 상위권을 차지

■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더딘 산업고도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부족 △기업간 융합역량 부족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

- 바오지시의 제조기업은 대다수가 조립 가공 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자금력이 약하며, 기업 및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속도가 매우 더딘 편임.
  - ○ 규모가 큰 기업은 대부분 전통 제조기업이며, 첨단기술이나 고부가가치 상품보다는 1차 상품 비중이 높음.
- 공업경제 성장을 위해 중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또한 중점 업종 기업과 현지 기업과의 융합역량 부족으로 산업사슬 확장이 제약되고 있음.
  - ○ 일례로 자동차 산업, 장비 제조업 등 영역은 원자재나 부품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하는데, 로컬 기업들과의 연계 및 융합역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큼.
  - ○ 이에 대기업이 현지 기업 제품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
- 이 외에 △경제성장 둔화압력 확대 △친환경 정책 △중·미 무역마찰로 인한 제조업 생산 수요 감소 등 요인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바오지시는 내부적으로는 자금 공급 확대, 기업비용 절감, 기업간 연계·융합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제 분업 및 협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외개방 수준을 확대하여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고자 함.

- 금융기관의 융자 난이도와 비용을 낮추고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금 규모의 내실화를 통해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재융자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여 직접 융자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 제조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역에서 기업의 원가 절감이 시행되도록 지도함.
- 기업과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국내외 선도 기업, 과학연구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혁신 전략 연합을 구축하고 기술개선 역량을 강화해 기술과 장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국내외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500대 글로벌 기업 유치에 힘쓰고, 기업간 인수합병, 기술 및 자금 협력을 통해 대외적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3. 산시성(山西省): 정책 지원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 산시성의 제조업은 자원 가공형 전통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과 첨단장비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R&D 투자와 혁신 역량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

- 산시성은 채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지역이며, 제조업 기업의 규모가 작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혁신 속도가 더딘 편

○ 산시성 타이위안시(太原市) 정부발전연구센터 웨이지엔팅(魏建庭) 주임은 "과거 산시성의 산업구조는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오늘날 석탄산업이 축소되면서 산시성은 핵심 경제성장 동력을 잃고 경제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

■ 기존의 '석탄 대성(煤炭大省)'에서 '제조 강성(制造强省)'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업 발전에 있어서 △인재유치 △원활한 자금조달 △원가 절감 등이 해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산시성 제조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이고 비용 부담이 크며, 인재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제조업 분야의 수익 감소, 노후된 국유기업의 활력 부족 등으로 인재유치가 어렵고 숙련공 및 연구개발 인력 유출 등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인재 부족은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부족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기술개발 사업 지원자금'이라는 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기업 입장에서 제한적인 금융 채널, 까다로운 절차, 높은 융자비용 등으로 금융자금 유입이 매우 어려움.

- 또한 따퉁시(大同市) 발개위 한웨이(韩伟)는 산시성 제조기업의 이익률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

에 기존 석탄기업에 대한 지역 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

■ 산시성은 석탄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첨단 제조업 우선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고, 2022년에는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석탄업의 비중은 11%까지 낮출 방침

- 산시성 공업정보청(工信厅)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제조업 구조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되었으며, 2018년 석탄업의 부가가치는 0.2% 감소했고 제조업은 9.2% 증가

○ 타이위안시 상무국 왕즈펑(王之峰) 총경제사는 2017년 이후 산시성의 기업환경 조성정책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신규기업 유치정책은 아직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 산시성 대표 제조기업 타이위안 보일러 그룹(太原锅炉集团)은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보일러 수요가 급감되었음에도 2018년 사상 최대 매출(19억 4,00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칭화(清华)대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발전 및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음.

○ 타이위안 공구공장(太原工具厂)은 업계 및 협회와의 조율을 통해 기업 상호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부품 조달을 우선시하여 산업체인 형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밝힘.

가. 따퉁시(大同市): 첨단 제조업 중심의 발전 추진

■ 따퉁시는 최근 2년간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첨단장비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공업 기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옴.

- 2018년 따퉁시는 연간 1,000억 위안과 월별 100억 위안의 공업 총생산액 목표를 달성했고 특히 제조업 생산은 전년대비 22.1% 성장한 96억 9,000만 위안을 기록
- 따퉁시는 △신소재 △차세대 정보통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바이오 제약 △현대방직 △항공산업 등 6대 신흥산업 중심의 산업 집적단지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따퉁시는 제조업 발전에 유리한 정책 지원을 추진 중임에도 △기업 규모의 한계 △인재유치의 어려움 △지역 내 산업체인 미비 △높은 물류비용 등 문제가 존재

- 따퉁시 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따퉁시는 공업 부가가치 중 제조업 비중이 27% 미만이며,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다고 언급
- 제조기업에서 명문대 졸업생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저우, 시안, 우한 등 기타 지역과 비교하여 인재유치가 어려움.
- 또한 주요 제조기업은 역내 산업사슬 미비로 원자재와 부품을 전국 각지로부터 조달해야 하며,

현재 신규 집적단지 건설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따퉁시는 2019년 현재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되지 않았으며, 다른 주요 거점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 비슷한 발전 속도를 보이던 충칭(重庆), 시안(西安) 등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따퉁시 전체 물류 매출은 18억 5,000만 위안으로, 이 중 물류비 원가(14억 8,000만 위안)가 약 80%를 차지함.

■ 따퉁시는 향후 높은 물류비용과 인재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 등 대도시에 연구센터 설립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류 시스템 개선 △대형 물류처리 센터 건설 등 방안을 실시할 계획

- 따퉁시 제조기업 중처따퉁(中车大同)은 고급인재 유치가 어려워 베이징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인재를 확보하고자 함.
- 따퉁시는 텔아비브(Tel Aviv)에 따퉁-이스라엘 과학기술협력사무소를 구축하여 기술교류를 진행 중임.
- 또한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형 물류처리센터를 건설하여 창고, 배송, 정보 공유 등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인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자 함.

나. 타이위안시(太原市):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돌파구 모색

■ 타이위안시는 중국의 중요 에너지 기지이자 노후 공업단지이며, 비철금속, 석탄, 기계 등 산업 중심으로 발전

- 중국 도시별 제조업 순위에서 타이위안시가 2007년 13위에서 2017년 27위까지 떨어지며 제조업 경쟁력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

■ 타이위안시는 제조업 생산량이 10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발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정책 및 행정 운영 미흡 △기업의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높은 금융비용 등이 지적되고 있음.

- 타이위안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주요 도시 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붐이 일었으나 타이위안시는 이를 유치하지 못해 도태되었다고 지적

○ 허페이시(合肥市)가 2017년까지 1,000억 위안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에 비해 타이위안시의 프로젝트 수주액은 25억 위안에 불과했음.

- 타이위안시 투자유치국 관계자는 “2018년 11월 타이위안시의 투자유치 계약 145건 중 제조업

관련 프로젝트는 69%(약 100건)를 차지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고 지적

○ 이는 산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산업 기반시설의 매칭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유입되기 어려웠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 타이위안시의 업종별 조세 부담을 보면 부동산(19.4%)에 이어 제조업(18.4%)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계 등 장비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업의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가 매우 높음.

○ 관계자에 따르면 장비 제조업체는 약 13%의 부가세와 직원의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보험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총 임금의 28.3%d[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함.

- 또한 기업의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계속 커지는 데 비해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손익분기점에서 평행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 타이위안시 기업인들은 자본이 여유롭지 않아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해야 하지만, 기업 부채수준이 높고 복잡한 은행대출 시스템으로 인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밝힘.

- 한편 타이위안시 타이중 그룹(太重集团)은 재정난으로 기술개발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대출비용 증가와 고급인력 유치 어려움으로 발전 동력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

○ 타이중 그룹의 주력 생산품은 중형 첨단기계설비로 신제품 개발이 어렵고 자본투입이 크며 생산주기가 길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타이위안시는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 인재, 토지 등 생산요소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부양책을 수립했으며,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원할 계획

- 2018년 타이위안시 정부는 △인재유치 △정부부처와 기업 프로젝트의 통합 증대 및 상호 개발 촉진 △투자 프로젝트 재개 △기술 표준 조건 설정 △부실 기업의 퇴출제도 수립과 같은 정책을 실시

- 또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협력 증대와 같은 자본 조달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은 직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연구인력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 일례로 타이위안 보일러 그룹(太原锅炉集团)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첨단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민영기업은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여 특정 지역에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함.

4. 안후이성(安徽省): 제조 발전환경 개선

■ 중국 최대의 구리 가공 생산지이자, 아시아 최대의 시멘트 생산지인 안후이성은 가전제품, 자동차, 원자재 가공 등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일부 첨단 제조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안후이성에서 생산된 가전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냉장고 33%, 세탁기 25%, 에어컨 20%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
- 또한 안후이성 소재 체리(Chery) 자동차의 수출량은 15년 연속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양자 위성·컴퓨터·통신, 초박형 디스플레이, 음성인식, 로봇 등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 안후이성은 「경영환경 개선방안」[1]을 발표하여 △불합리한 규제 타파 △금융 지원 △조세 부담 및 생산·운영 비용 절감 △신성장동력 산업 중시 등을 통해 제조업 발전을 더욱 심화할 계획

- 안후이성은 비효율적인 기업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팡관푸(放管服)[2],'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 정책을 추진
  - ○ '팡관푸' 개혁을 통해 정부의 각종 제출 서류 및 신청 관련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2019년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업 등록 행정처리 속도를 기록(약 3일)
  - ○ 온·오프라인 행정 단일화 정책을 통해 최신 행정 전산화 개혁을 심화할 계획
- 민영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후이성은 2019년 초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은행대출을 지원
  - ○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10억 위안의 재정을 투입하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또한 국내외 경기 불안과 역내 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감세 강도를 추가적으로 높일 것이라 발표
  - ○ 2019년 3월 1일부터 안후이성은 취득세 등 세율을 3%로 일괄 인하하고 부동산세, 인지세, 토지 이용세, 농경지 점유세 등 세금을 법정 최저 수준으로 인하
- 안후이성은 중대 신흥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
  - ○ 2017~18년 동안 매해 60억 위안의 특별 프로젝트 자금을 출자하여 중대 신흥 산업단지, 중대 신흥

---

1) 「안후이성 경영환경 개선방안(安徽省聚焦企业关切进一步推动优化营商环境政策落实实施方案)」, 본문에서는 「경영환경 개선방안」으로 명명.

2) 2018년 11월 29일부터 실행한 팡관푸(放管服) 개혁은 기업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팡(放), 혁신활동 감독, 시장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관(管), 효율적인 서비스를 통해 기업 영리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푸(服)를 의미함.

산업 사업, 중대 신흥 특별 프로젝트 건설 및 혁신형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을 강화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계획

○ 2018년 안후이성 정부는 제조업 강화 및 육성을 위해 14억 5,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2,023개 항목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가. 허페이시(合肥市): '대외무역 안정, 시장신뢰 안정, 조세부담 감면, 인재유치' 강조

■ 2016년 국무원은 허페이시를 '국가 중요 현대 제조업 기지(国家重要的现代制造业基地)'로 지정함에 따라 허페이시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제조업 시스템을 구축해옴.

- 허페이시는 우위 산업인 전통 제조업과 신흥산업을 결합한 첨단 제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제조업 혁신 지표에서 상위 10대 도시에 진입

■ 그러나 허페이시는 △핵심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 △고급 인재 부족 △R&D 저조 △중·미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 등의 문제에 직면함.

- 핵심 장비, 기반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자금과 연구개발 인력 부족 및 하드웨어 부족 문제를 보유
- 안후이성 내 대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문가 및 전공자가 부족한 실정이고, 각종 규제와 인센티브 제약으로 인해 외부 인재의 유치 및 잔류가 어려운 상황

○ 허페이 마이크로전자장비(芯碁微电子装备有限公司)의 인사담당자는 "허페이시는 특히 해외인재 유치 시 각종 규제로 인해 유치활동과 입사 후 동기부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

○ 허페이 완리타이어(万力轮胎有限公司) 리청민(李承民) 부사장은 "국유기업은 핵심인재에 대한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워 젊은 인재들을 데려와도 결국 떠난다"며 인재유치의 어려움을 토로

- 또한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는 공정 기계 및 부품, 가전, 자동차 및 부품 등 중점 업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장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공정기계 및 부품 업종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일부 영세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킴.

○ 원재료 수입 식품가공 업체는 중국이 부과한 대미 농산품 수입관세의 영향으로 원가상승 문제에 직면했고, 금속 재가공 기업들도 관세 부과 이후 주문량이 급감함.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허페이시의 제조기업은 대미 수출업무가 전면 마비되어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대미 수출 포기를 고려하는 상황

○ 스마트폰, 전자 부품 관련 생산 및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관련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허페이 제조기업의 생산설비와 주문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기업은 이미 유럽, 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음.

■ 이에 허페이시 정부는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정책 지원 △인재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부흥을 이루고자 함.

- 허페이시는 2017년 92억 7,700만 위안, 2018년 150억 위안 규모의 법인세 감면정책을 실시했으며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조세감면을 시행

○ 기업의 토지 임대비용을 낮추기 위해 토지등기 범위와 세액 기준으로 세율을 하향 조정

-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고용안정 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급

○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가전, 자동차 등 중점 산업별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기업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창조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먼저 사용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함.

- 유럽과 남미 등 국가로의 수출국가 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행

- 허페이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 응용학부를 개설하고, 국제 연구개발센터 설립, 인재발전 특별자금 설립을 통해 인재유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

나. 마안산시(马鞍山市): 고품질 스마트 제조도시 조성

■ 마안산시는 공업화율이 50%가 넘는 공업주도형 도시로, 철강, 자동차, 전력, 화학공업 등 전통 산업과 함께 철도·교통장비, 정보통신, 에너지 절약, 녹색식품, 바이오 의약 등 신흥산업이 발전함.

- 마안산시는 전통 제조도시에서 스마트 제조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의 질적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고 혁신 주체를 육성하고자 함.

○ 마안산시는 2018년까지 혁신주체 육성을 통해 87개의 성장 잠재력 보유 기업, 81개 하이테크 기업, 37개 과학기술 기업, 그리고 29개 기술단체를 발굴함.

- 또한 제조업 발전수준을 제고하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고급화를 추진함.

■ 마안산시는 스마트 제조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인재유치가 어렵고 높은 융자비용으로 인한 기업대출 문제에 직면함.

- 마안산시 인재사무소 관계자는 △인재 도입 부족 △인재 유치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미비 △

인재 숙소 배치 미비 △창업 플랫폼 미비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

- 또한 마안산시 금융담당관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기업의 직접 융자가 더 어려웠는데, 이는 채권 발행 규모가 줄어 정부 플랫폼을 통한 융자가 줄었고, 통화정책의 확대로 기업의 융자비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임.

■ 향후 마안산시는 스마트 제조도시 구축을 목표로 △경영환경 최적화 △인재유치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

- 마안산시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 확대, 다양한 자금조달 조치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감세조치를 시행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자 함.
- 또한 역내 기업 및 사업을 난징도시권, 허페이도시권, 창장경제벨트 전략과 연계하여 인재유치를 촉진하고 유치한 인재들의 생활환경 최적화에도 힘쓸 예정
  - ○ 대학생 및 기술노동자를 중점 육성 및 유치하고, 생활환경 최적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건설, 정무환경 및 혁신 창업환경 최적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또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엄격한 지식재산권 관리 조직 및 내부 관리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할 계획
  - ○ 이에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문 법률 고문을 초빙하여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이 외에 「마안산시의 신시대 질적 발전에 관한 의견(中共马鞍山市委关于推进新时代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18% 성장 △첨단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15% 성장 △규모이상 공업기업 부가가치 연평균 8.5% 성장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 전체 GDP 대비 2.7%에 육박하는 연구개발비 지출 등의 목표를 설정[3] KIEP

3) 「마안산시의 신시대 질적 발전에 관한 의견(中共马鞍山市委关于推进新时代高质量发展的若干意见)」.

[참고자료]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安徽出硬招实招优化制造业发展环境」. 2019. 『中国经济时报』. (6月5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合肥：稳外贸、定信心、减税负、聚人才」. 2019. 『中国经济时报』. (6月6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马鞍山：高质量打造“智造名城”」.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0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多措并举挺起“山西制造”的脊梁」.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1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寻求外力太原制造业谋求突围之路」.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2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谋振兴 大同誓言高端制造大有作为」.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3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陕西制造业期待重塑辉煌」.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4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高端装备制造业：重振西安制造辉煌」.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8日)
「制造业发展环境系列调查 | 宝鸡制造业：期待在减负中实现提速」. 2019. 『中国经济时报』. (6月19日)
CEIC Database.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

자료 정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원 박사과정 은종서(unjongsu@naver.com)